

# 1930년대 정조(貞操) 서사의 판타지

- 『삼봉이네 집』과 『순정해협』, 『순애보』를 중심으로

권창규\*

## 차례

1. 정조가 근대적으로 발명, 관리되는 사례  
- 『삼봉이네 집』 중 을순의 ‘치녀성 검사’
2. 타락과 구원의 틀 I-민족서사에 편입되면서 구체되는 을순의 타락
3. 타락과 구원의 틀 II-『순정해협』과 『순애보』의 보편적 휴머니즘이  
구원하는 여성 인물의 타락
4. 정조 서사의 판타지가 만들어내는 ‘신여성’과 ‘신남성’의 문제

## 국문초록

본고는 민족서사로 다루어지는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1930~31)이 여성의 육체적 타락에 얽힌 스캔들을 채용한 ‘정조(貞操) 서사’라는 데서 출발했다. 함께 다룬 작품은 흔히 통속소설로 일컬어지는 『순정해협』(1936)과 『순애보』(1939)로 세 작품은 정조의 <발명-타락-구원>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틀을 보여준다. 신소설부터 이어진 정조서사의 30년대적인 특징과 더불어 30년대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는 정조서사의 변화는 본문에서 언급했다. 세 작품이 공유하고 있는 틀, 즉 정조가 발명된 이상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구원되어야 한다는 틀을 본고에서는 ‘정조 서사의 판타지’로 명명했다. 정조 서사는 정조의 타락을 재단하는 낡은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조의 타락을 구제하고자 동원하는 미래의 전망이 교차되는 곳이다. 그 양상의 하나로 정조 판타지 속에서 재탄생하는 여성상과 남성상을 함께 문제 삼았다.

핵심어 : 정조, 타락, 구원, 스캔들, 판타지, 도덕, 오락, 통속성, 신여성, 신남성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 논문은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1930~31) 읽기에서 출발했다. 민족 서사로 다루어지는 『삼봉이네 집』의 절반은 을순의 ‘정조(貞操) 서사’라 할 만한 것이고 민족 서사라는 점에 묻혀 이 사실은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 『삼봉이네 집』의 전반부가 을순의 정조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 후반부의 민족서사와 연결시켰을 때 여성 정조에 얽힌 전형적인 서사유형을 보여준다는 점은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신소설부터 여성의 정조 문제는<sup>1)</sup> ‘단골 메뉴’로 취급되어왔다. 소설은 여성의 정조를 대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독자들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근대의 성이 무엇인가라는 리타 펠스키의 말을 응용하여<sup>2)</sup> 근대 서사 속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정조의 성(性)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정조의 성은 단연 여성이다. 여성의 정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를 둘러싼 남성인물의 대응과 변모양상은 또 어떠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930년대의 정조 서사로 필자는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과 함께 함대훈의 『순정해협』(1936), 박계주의 『순애보』(1939)를 논문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흔히 『삼봉이네 집』은 민족서사로 다루어지고, 함대훈과 박계주의 소설은 ‘통속 소설’이라는 말로 오락물로 치부되어 왔다. 본 논문의 그간 문학사를 굳건하게 지배해왔던 소위 ‘작품성 있는’ 민족서사와 오락적인 통속서사의 간극이 멀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 까닭은 두 서사 유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대상으

1) 본고에서 여성 정조는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결혼 전의 ‘처녀’와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육체적 충실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썼다. 용어의 문제는 결론(4)에서 다시 언급했다.

2) 리타 펠스키(Rita Felski)의 『근대성과 페미니즘』(The gender of modernity)(김영찬·심진경 옮김, 거름, 1998.)은 ‘근대의 성(gender)이 무엇인가’라는 서두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서구의 근대를 대표했던 핵심 상징들(공적 영역, 군중 속의 인간, 이방인, 댄디, 산책자 등)은 명백히 성별화된 것으로 근대담론은 대부분 남성 중심적이다.(43쪽)

로 도덕과 오락의 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여성 주인공의 정조문제에 관한 서사가 소설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던 점에 주목하여 정조서사의 전형적인 유형을 뽑아내는데 관심이 있다. 정조 서사는 오랜 정조 이데올로기가 작동되는 현장과 ‘신여성’과 ‘신남성’으로 대표될만한 근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틀이기 때문이다. ‘근대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소설부터 따져도 ‘타락’한 여성은 흔히 처절하게 응징되거나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다루는 세 작품에는 모두 타락한 여성의 구제문제가 등장한다. 즉, 여자주인공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계몽 서사에 포섭되는 선도의 대상으로서 등장한다. 이는 1930년대 정조의 ‘타락’을 사회적인 문제로 삼는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타락’한 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속과 개도의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응징’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해 보이는 ‘선도’라는 구원의 틀 속에서 소설 속 남성과 여성은 각각 ‘신남성’과 ‘신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공통적으로 세 작품은 여성주인공의 육체적 타락에 얽힌 일정한 정조서사의 틀을 보여주는데 타락과 구원의 기제, 즉 정조가 발명된 이상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구원되어야한다는 틀을 공유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정조서사의 판타지’로 부르고자 한다. 30년대 초에 발표된 『삼봉이네 집』이 ‘처녀성 검사’라는 과학을 통해 정조가 확인, 증명되는 과정부터 보여주고 있다면, 30년대 중후반의 두 연애 서사물 속에서 여성은 극단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여성의 정조가치 하락을 문제로 만들어내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

본고는 세 작품을 통해 30년대 정조판타지의 틀을 살피고, 정조판타지가 거두는 오락적인 효과와 도덕적인 목적을 살핀다. 전통적인 정조 이데올로기가 정조의 타락을 재단하고 있다면, 타락한 정조를 구원하는 기제는 근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판타지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살피겠다.

## 1. 정조가 근대적으로 발명, 관리되는 사례

### -『삼봉이네 집』 중 을순의 ‘처녀성 검사’

1930년대의 “군상(群像)” 삼부작에 속하는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은<sup>3)</sup> 간도를 배경으로 한 민족주의 투쟁이라는 소재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삼부작의 다른 두 작품, 공산주의자를 악의적으로 비꼰 『혁명가의 아내』나 애육의 파국을 그린 『사랑의 다각형』에 비해 『삼봉이네 집』은 단연 묘사나 규모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들이 집중했던 대목은<sup>4)</sup> 주로 작품의 후반부로 삼봉일가가 간도로 이주한 후 민족 서사의

3) “『동아일보』에 연재중인 군상을 1930년대의 조선의 기록으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余의 작가적 태도』, 『이광수 전집』 16, 삼중당, 1963, 193쪽) <군상>은 “내가 본 1930년대의 조선의 횡단면을 그려보자는 생각이다.”(『이광수 전집』 16, 275쪽) “군상의 속편 其 三” 즉 군상의 제 3부작이 되는 『삼봉이네 집』은 『동아일보』(30.11.29~31.4.24)에 연재된 작품이다. 30년 11월 28일 석간부터 연재 공고가 실렸고, 31년 4월 24일 84회로 마무리됐다. 1.6일(22회)에 이어 1.30일(23회)에 연재되는 등 연재본을 확인하기가 까다로운데 본고의 주요 발췌 부분만 확인하여 밝혀두었다. 본문의 쪽수는 삼중당본(『이광수 전집』 2, 1966)이고 이하 『삼봉이네 집』으로 표기한다.

4) 김중호의 논문(『이광수의 <삼봉이네 집> 연구』, 『어문학』 61집, 1997, 23~42쪽)은 만주 조선인의 민족주의 무력투쟁에 주목했다. 오양호의 논문(『한국소설과 역사 체험』, 『현대소설연구』 5호, 1996, 65~89쪽)은 소설 속 간도체험이 식민지하 소작농의 영락화과정이 극적으로 드러난 경우로 보고 만주, 간도를 배경으로 한 다른 작품과 함께 다루고 있고, 한승옥의 논문(『193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간도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23호, 2004, 47~68쪽)은 간도체험 속에 형상화된 중국인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김윤식은 <군상> 삼부작을 두고 건강악화를 극복한 상태에서 나이 40세의 이광수가 내놓은 야심작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전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식, 『이광수의 그의 시대』 2, 숲, 1999, 174쪽) 그는 『삼봉이네 집』을 “기품도 골격도 있는 작품”으로 꼽고 성장소설로서 『삼봉이네 집』이 제시

주체로 급조되는 결말에 해당한다.

삼봉일가의 가족서사요, 민족서사인 이 소설은 흥미롭게도 삼봉의 누이동생인 을순의 정조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바로 작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서사로, 후반부의 척박한 간도 개척 서사와 달리 전반부는 근대법률과 저널리즘, 의학까지 총출동한 화려한 외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부는 삼봉 일가가 간도로 이주하기 전에 노참사의 첩으로 들어간 을순, 정확히는 을순의 정조문제를 둘러싸고 재판까지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삼봉이네는 소작하던 토지를 잃고<sup>5)</sup> 간도로 향하던 중에 노참사의 집에 “의탁”하게(441) 되는데 이는 을순을 첩으로 들인다는 암묵적인 전제 하에서다. 을순이가 노참사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삼봉이가 뛰어들어 분란을 일으키는데, 노참사의 “고발”로(443) 이 일이 재판까지 넘어간 것이다. 노참사는 자신이 돈을 주며 을순을 유혹했음에도 을순이 삼봉과 짜고 노참사의 돈을 강탈하려 했다고 죄를 뒤집어씌운다.

노참사가 첩인 을순과 여러 날 동침한 사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바람에 을순의 처녀 여부를 판별코자 처녀성검사까지 동원되는 재판과정은 전반부의 클라이맥스다. 이 클라이맥스를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볼만한 점이 있다. 바로 삼봉이가 부딪히는 근대적인 법체계의 결끄러움이다. 시골유지와 첩 사이에 벌어진 ‘그렇고 그런’ 일은 예전 같으면 신분적 질서에 따라 처단되고 말았을 사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인 재판

하는 결말, 즉 민족주의 투쟁과 무산 계급 투쟁의 문제에 주목했다.(176~179쪽)

5) 지주인 박진사네는 “동척(東拓)”과 “식은(殖銀)”에 토지를 저당잡히고 장사를 하다가 돈을 갚지 못한다. 따라서 땅이 경매되고 소작농인 삼봉네가 땅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된다. (『삼봉이네 집』, 407~408쪽) 흔히 ‘삼봉이네는 동양척식회사에 땅을 빼앗겼다’고 설명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정은 소작농 신분인 삼봉과 ‘참사(參事)’의 신분인 시골유지 노기호를 ‘피고’와 ‘원고’의 자격으로 대등하게 법정에서 세운다.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역시 새롭다.

하지만 새롭고 공개적인 심리과정이 법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래 인용문은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치장에 갇혀있는 삼봉이가 순사와 나눈 대화다.

“내가 했다고만 하면 우리 을순이도- 내 누이도 내놓을 테어요?”하고 삼봉이는 비록 나이는 스무 살이라 하여도 아직도 도회 사람 심육, 칠세밖에 아니 되어 보인 점도 없지 아니한 소박한 눈치로 순사를 바라 보며 물었다.

“암, 그럴 테지. 네 누이가 공모만 아니 했으면 놓이고말고.”하고 순사는 아주 쉬운 일같이 말한다.

“공모가 무어야요?”하고 삼봉이는 대단히 열심히이다.

“너하고 미리 짜가지고 노참사의 돈을 강탈했던 말야.”하고 순사는 무슨 급한 일이나 생긴 듯이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446쪽, 진한 표시는 필자, 『동아일보』(31.2.4))

순사와 삼봉의 대화는 실감이 있다. “아주 쉬운 일같이” 말하는 순사는 법의 집행자인 강자요, “대단히 열심히”으로 ‘공모’라는 단어를 탐구, 학습하는 삼봉은 약자다. 삼봉으로 대표되는 가족(삼봉의 어머니, 을순이, 삼봉의 처, 오봉이, 정순이) 모두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인다. 삼봉네 식구들은 “범인이란 말이나 자백이란 말”을(448) 알아듣지 못한다. 애초에 “돈의 조화, 금융 경제의 마술적 기구”를(479) 모르는 상태로 제시되었던 삼봉은 역시 근대적인 사법체계 속으로도 진입하기 어렵다.<sup>6)</sup> 근대적 질서와 통제에 따를 수 있을 때야 ‘자유’를 획득할 수 있

6) 삼봉은 얼마 전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 있었고 “명절 날 밖에는 주머니에

고, 이 통제와 질서의 항목들을 습득하는 게 먼저다.<sup>7)</sup>

일본어 ‘共謀(きょうぼう)’의 번역어로 등장했을 ‘공모’라는 어휘는 새롭지만 순사의 취조내용은 새롭지 않은데, 주변 가족을 괴롭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옹아매려는 수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펼쳐지는 재판과정 역시 난해한 용어로 무장된 놀라운 세계를 보여준다: “검사국”, “예심”, “공판”을 비롯하여 “범인”, “자백”, “심문”, “공모”, “무고죄”, “공소장”, “재심” 그리고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대학 부인과의 “처녀성 검사”까지. 하지만 놀라운 세계가 전적으로 공평하지는 못하는데 삼봉이 상대하는 노기호가 금력과 권력을 지닌 참사 신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이란 것의 압력”을(444) 받고 있는 이상 삼봉이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 삼봉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여성 첩과 남성 주인의 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정황이 그것이다. 삼봉이네 식구들이 어떤 연유로 노참사의 집에 거거하고 있었는가, 을순이 노참사의 첩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서로서로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노참사의 강간죄를 주장하는 삼봉측의 주장은 “어불성설”밖에 되지 않는

---

돈을 넣어본 일조차 없었다.”(『삼봉이네 집』, 410쪽) 그런 삼봉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지식”을 가지고 “가까스로” 차표를 사는 장면도 흥미롭다.(410~411쪽) 그렇다고 삼봉이를 꼼짝없는 시골 무지렁이로 쉽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삼봉과 을순은 모두 보통학교를 나왔고 글을 읽을 줄 아니까 1920년대말 조선에서 20% 내외의 조선어 해독층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문맹률’ 통계에 대해서는 노영택의 논문(『일제시기의 문맹률 추이』, 『국사관논총』 51집, 1994, 국사편찬위원회, 109~159쪽)중 118쪽/131쪽 참고) 이후 간도서 만난 세재와 금동은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장이”들인데 삼봉이 책도 볼 줄 알고 편지도 쓸 줄 안다는 데 “일종의 숭배심”을 갖고 있다. (508~509쪽) 다만 삼봉이가 국어인 일본어를 말할 수 있다는 정황은 없다. 삼봉의 조선어는 통역을 거쳐 일본인 순사에게 전달된다.

7) 일정한 “담론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이나 의학의 제도적인 체계 역시 마찬가지로 “담론적 예측”의 체계를 구성한다.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27~31쪽.

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첩인 을순에게 정조가 과잉 배당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을순은 자신과 식구들의 생활을 보장할만한 “뽕나무 박힌 집”과 “농토”를(431) 자신의 몸과 거래할 참이었다.<sup>8)</sup> 하지만 노참사가 건넨 “천 원”을 약속하는 각서와 자신의 “정조”를 맞바꾸려는 사건 당일 밤, 을순은 “유혹”을 뿌리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고(443) 호령한다, 아니 호령하게끔 되어 있다. 노참사의 첩으로 들어간 을순이 불현듯 “내 정조만은 지키자”고(434) 다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을순의 다짐은 ‘불경이부(不更二夫)’로<sup>9)</sup> 대표되는 전통적인 여성정조 과잉풍조와 맞닿아있는 동시에 ‘처녀’를 지킨다는 것으로 ‘고결함’의 항목이 쉽게 부여되는 근대서사 속 여느 인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처녀를 지킨다는 말이 처녀를 발명하고 처녀를 실체화한다. 흔히 처녀는 “온전한 건강”을 의미하는 동시에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의미한다.<sup>10)</sup>

8) 첩으로 들어간 을순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질서 하에 매매된 ‘매춘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속 을순의 “영리”함(『삼봉이네 집』, 431쪽)은 식구들을 위해 노참사의 희롱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정황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설명되어 있다.

9) 어려선 아버지, 출가해서는 남편, 노후에 아들을 따른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관습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평가받는 고려에서도 조선과 공통적이었다. 신분제를 유지하며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예로부터 국가는 개인의 혼사를 적극 관리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상층부 여성들이 타깃이 되어 정조이데올로기가 정착되어 왔다는 점은 흥미롭다. 허홍식의 논문(『고려시대 근친혼과 일부일처제』, 『역사비평』(1994.여름), 80~86쪽)과 장병인의 논문(『조선 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비평』(1994.여름) 87~107쪽) 참조. 일본이 조선인 고급관리의 부인들을 “순수하고 공손한 부인”부터 “고결한 부인”까지 9등급으로 분류했던 명예의 칭호(차학경, 『덕테』, 김경년 옮김, 어문각, 2004, 39쪽) 역시 상층부 부인을 타깃으로 삼은 국가 통제의 일환으로 보인다.

10) 처녀의 몸은 온전히 건강한 것이므로 처녀성이 보존되어야하며, 동시에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이므로 여성의 성욕은 위험한 것으로 취급된다.(Foskett, Mary F., “The virgin body”, *A virgin conceived: Mary and Classical Representations of Virginity*, Indiana University Press(Net-book), 2002,



여성인물들은 자신의 처녀를 어렵게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기생이지만 정조를 지켰다는 사연은 ‘미담’이고 장차 바람직하게 개도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바로 첫 근대 소설로 꼽히는 『무정』(1917)의 에피소드다.<sup>11)</sup>

처녀가 배당된 을순에게는 우선 자신의 처녀를 ‘공표’해야 하는 절차가 주어져있다. 바로 을순이 첩으로서 노참사와 여러 번 동침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맞서 자신이 처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확인’과 ‘증명’을 위해 동원되는 절차는 과학, 특히 의학 검사로 바로 을순의 처녀 여부를 판별코자 하는 “처녀성 검사”다. 법정에서 처녀성 검사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는 것은 <첩-주인>의 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축첩’ 행위가 법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일보된 가능성을 암시한다.<sup>12)</sup>

---

p.33) “유혹이나 강간의 위협 하에 있는 처녀”라는(p.50) 이미지는 남성의 성적 위협을 남성의 영예를 보존하는 전략으로 만드는 반면 여성은 배일에 가려져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낳는다. 결혼을 기다리는 여성으로서 처녀는(p.44) “결혼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장소”를 의미하며 결혼은 아버지의 영역으로부터 배우자의 영역으로 처녀성이 이전되는(transfer) 것을(p.49) 의미한다.

11) 오문석은 ‘순결 문제’를 둘러싸고 『무정』이 보여주는 낡음과 새로움의 혼재양상을 논의한다. 『무정』에서 “구시대의 윤리를 이용해서 신시대의 윤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법”(70)은 독자수용의 측면에서도 고려할만한 문제다. (오문석, 『『무정』에서 순결함의 의미와 그 기능,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 연구회, 1998, 51~70쪽)

12) 1915년 총독부 통첩 제 24호에 의해 첩의 호적입적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한다. 축첩행위가 실제로 처벌받았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삼봉이네 집』에서 첩을 ‘강간’한 죄는 성립되고 있다. 참고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53년 형법에서 부부평등의 간통죄 및 쌍벌죄가 규정되기에 이르러서야 축첩행위는 부부간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 Q&A’에서 ‘ethnos44’의 답 참조.) 고려와 조선 역시 ‘일부일처 다첩제’의 사회로 남성의 축첩은 전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일제 강점기 혼인 및 친족 관계에 관한 ‘가족법’에서 1912년 일본민법이 적용된 후에도 조선의 관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한복룡의 논문(『한국 혼인법의 역사적 기초』, 고려대박사, 1988, 5~11쪽) 참조. 축첩금

‘치녀성 검사’란 질 입구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있는<sup>13)</sup> 조직, 즉 속칭 ‘치녀막’의 모양을 촬영하여 그 파열여부를 보고 치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검사다. 소설에서는 피고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우여곡절 끝에 “XX대학 의학부 부인과의 X교수에게 위촉”되었다.(459) 하지만, “치녀막의 존재 여하로 어떤 여자의 치녀성을 검사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460) ‘치녀막’이란 “다른 원인으로 파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460) 치녀막을 사실상 <치녀의 막>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따라서 <치녀성 검사>라는 의학적 확인 역시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소설 속 치녀성검사는 첩과 주인 사이에 일어난 낯은 불상사가 새로운 범정공방으로 부상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치녀성 검사’부터가 새로운 과학과 낯은 정조이데올로기가 기묘하게 혼재된 형태다. 정확히 말하면, 의학은 기존의 여성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해왔다. 의학은 여성의 ‘치녀막’을 확증함으로써 여성 정조를 “자연적 약속”으로 만들고 “도덕”의 “제 일위”로 만든다. “정조는 역시 여자의

---

지가 범령화되지 않았음에도 1:1의 부부관계가 모범적인 관계로 추천되어간 데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권보드래, 『공화(共和)의 수사학과 일부일체제』, 『문화과학』 24호(2000. 겨울), 230~231쪽)

- 13) ‘질 입구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는 말은 이 조직의 가운데가 뺨 뚫려있다는 말이다. 질벽을 둘러싼 다소 견고한 이 결체 조직은 가운데가 뚫려있기 때문에 질 분비물과 월경혈이 질 밖으로 배출되며, 성교도 가능해진다. 이 조직의 기능은 나쁜 균이 질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성교나 운동으로 인해 파열된다. 소혈관이 발달되어 있어 조직이 파열될 경우 대체로 출혈 증상을 동반한다. 조직이 두꺼울수록 심한 통증과 출혈을 동반하게 되고 얇을수록 출혈이나 통증은 적으며, 격렬한 운동으로 치녀막이 파열될 수도 있고, 분만한 여성에게도 비교적 치녀막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박금자, 『여성도 모르는 여성의 몸』, 민 미디어, 2003, 19~20쪽/64~66쪽) 따라서 ‘치녀막’이라는 명명부터 시작해서 ‘치녀성 검사’라는 과학, 치녀여부와 출혈여부를 연결 짓는 일상적 관습은 모두 강력한 여성정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치녀성검사’는 질 입구의 조직을 ‘비디오스코프’라는 첨단장비로 확인, 촬영한다. (정경숙, 『여자가 감히?』, 베스트셀러, 1999, 219~224쪽)

도덕에는 제 일위가 아닐까 한다. 전체는 아니라도 제 일은 될까 한다. 여자의 처녀막이 그 자연적 약속을 표시함이 아닐까”하는 말은 36년 『조광』에 실렸던 이광수의 말이다.<sup>14)</sup>

당시에는 “일인(一人) 이상의 남성과 관계한 부인의 혈액 중에는 남성 혈액이 작용하여 혼란을 이끈다고 한다.”<sup>15)</sup> ‘과학적인’ 상식도 꽤 퍼져있었던 듯하다. “인위로도 어쩔 수 없는 자연사실”과 “자연명령”으로 포장된 여성의 정조는 모성의 신성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어왔다. 여성의 절조를 확증해주는 과학은 1930년대 “부인의 정조 가치 저락”을 도덕적으로 심판할 때 가장 손쉬운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처녀성 검사가 등장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 이태준의 『딸 삼형제』(1939)가 있다. 『딸 삼형제』에는 전문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불쾌한, 가장 불유쾌한 진찰”<sup>16)</sup> 자청하는 ‘정매’가 나온다. 해당 여학교는 미혼만 입학을 허가하는 까닭에 정매는 처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녀성 검사’를 자청한 것이다. 정매가 조혼을 했던 이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sup>17)</sup> 이 경우는 여성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관과 그 교육의 대

14) 『처녀성을 잃고 고민하는 여성들에게』(『조광』 7호(36.5), 242쪽) 라는 기획 기사 중에 안재홍과 함께 실렸던 이광수의 글.

15) 김문식, 『법창만화(法窓漫話)』, 『조광』 28호(38.2), 133쪽. “부인의 정조 가치 저락” 역시 이 글에 나오는 말이다. 당시 폐경과 갱년기는 “홀몬 분비”로 설명되고(문인주, ‘홀몬의 생리’, 『여성』 창간호(36.4) 28쪽/41쪽) “배란기”와 “피임”의 방법 역시 지면에 소개될 만큼(정목이, ‘피임의 길’, 『여성』 (36.5), 14~15쪽) 과학은 ‘진보’하고 있었지만, 그 진보의 방향은 늘 문제될 수밖에 없다. ‘민족’과 ‘인류’에 대한 사명으로서 모성을 논의하는 이광수의 글(‘모성’, 『여성』 (36.5), 12~13쪽)도 참조.

16) 이태준, 『딸 삼형제』, 깊은샘, 2001, 64쪽. “처녀가 아니라고 입학을 안 시킨대서” 자청한 ‘처녀성 검사’ 결과 정매의 “처녀”는 “증명”된다.

17) 여자고보를 졸업한 정매는 세 자매의 맏딸로 부모의 뜻에 따라 조혼을 했다. 신랑은 어린 “남학생” 신랑. 정매는 신랑과 변변한 잠자리 한 번 치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달포 후 신랑이 동경으로 유학을 가버린다. 방학 때 돌아온 신랑이 여자 하인을 데치는 광경을 보고 정매는 친절으로 도망쳐와 버린다. 정매는 “처녀”이지만 결혼을 했던

상을 “성인 이전”의 여성(은 미혼의 여성을 가리키고 있다)으로 한정하는 낡은 이데올로기가 뒤범벅된 에피소드로 보인다.

「삼봉이네 집」 역시 비슷한 경우로 보인다. ‘축첩(蓄妾)의 오래된 관례 속에서 일어날 법한 여성 첩과 남성 주인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은 근대법과 의학의 힘을 받아 ‘처녀성 검사’라는 기괴한 장치를 끌어들이고 있다. 처녀성 검사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됨으로써 을순의 ‘처녀’를 확인하는 믿을만한 과학적 절차가 되어있다. 다행히 을순은 “처녀인 것이 확실하고 일점의 의심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460) 검사결과가 나온다. 만약 합당치 않은 검사에 의해 을순이 처녀가 아니라고 밝혀졌던들 소설의 독자들은 삼봉처럼 을순을 죽여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이다.<sup>18)</sup>

을순의 정조는 과학의 힘을 통해 증명되었고, 법정에서 공표되었으며, 저널리즘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1차 공판, 재심청구, 최종공판을 통해 진행되는 복잡한 재판과정에는 “신문을 보고 백퍼센트의 흥미를 가지고 모여 들었던 방청객들”이(458) 들끓는다. “을순의 처녀성 검사 문제는 일반에게 더욱 센세이션을 일으키었다.”(459) 삼봉의 사건은 저널리즘의 힘을 통해 “전조선적인 얘깃거리”가 되어 있다. 특히 당시에 여름철이면 유행했던 “탐정 소설적” 기법에 따라 작품 속 사건은 치밀하고 흥미진진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흥미로운 진행 속에서 을순의 성생활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

이력 때문에 학교를 입학하지도 못하고, 차의사에게 호감을 가졌을 때도 계속 머뭇거리게 된다. 이후 사무원으로 나선 정매가 재혼과 과정을 겪어나가는 과정이 소설의 중심 줄기다. 『말 삼형제』의 정보와 함께 「삼봉이네 집」의 논의는 이경훈 선생님의 <현대소설연구> 수업(연세대학교, 2008-2학기)에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

18) “만일 을순이가 처녀가 아니었다 하면, 삼봉은 당장에 뛰어 나가서 을순을 죽여 버렸을 것이다. 삼봉이는 것처럼 누이 을순의 순결을 믿고 사랑한다.”(「삼봉이네 집」, 461쪽)

을순의 섹슈얼리티는 왜 ‘공유’되어야 하는가. 을순의 처녀는 왜 모두의 보물이어야 하는가. 이는 을순에게 닥친 폭력적인 섹스 스캔들일 뿐이다. 의학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 사람을 관리하는 “규범적인 문제”로 “사람과 사회가 맺고 있는 육체적이며 도덕적인 관계까지 담당”한다.<sup>19)</sup> 여기서 처녀성검사는 ‘처녀’를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서 “정상”으로 규정해 내는 강력한 도구다.

의학이 뒷받침된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 『삼봉이네 집』에는 두 명의 희생자가 있다. 누이의 정조를 책임져야하는 자로 피고석에 선 삼봉은 ‘드러난’ 희생자요, 자신의 처녀를 만천하에 입증해야하는 을순은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다.

## 2. 타락과 구원의 틀 I

### -민족서사에 편입되면서 구제되는 을순의 타락

전반부의 법정드라마에서 을순은 정조를 배당, 공표 받았는데, 이 과정을 ‘대표’하는 인물은 삼봉이라 할 수 있다. 을순의 처녀를 삼봉이 구하고, 그 처녀로 인해 삼봉이 간히고, 결정적으로 을순의 처녀 때문에 삼봉이 풀려난다는 서사는 지독한 성(性)적 서사다. 크게 봤을 때 을순은 오빠에게 종속된 형태로 관리되고, 삼봉은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누이의 정조를 관리하는데, 이는 남매가 서로를 옹아매는 구조다. 어린 가장으

19) 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인간사랑, 1993, 77~79쪽.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 건강과 죽음을 구분하는 지식의 영역, 나아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정상/비정상 상태까지 규정한다. 푸코는 19세기에 시작된 서구의 임상의학이 ‘해부학’이라는 실증적 과학의 방법을 통해 “인간의 몸을 합리적인 언어에 접목”하고(23쪽),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재정립한다고 설명한다.(318~320쪽)

로서 삼봉은 을순뿐 아니라 동생들과 어머니를 전부 책임지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을순-삼봉>의 상호 억압적인 관계는 재판에서 승소한 삼봉의 가족이 간도에 이주한 후에도 지속된다. 삼봉일가의 드센 간도 개척 서사는<sup>20)</sup> 실패하고 마는데, 여기에는 서간도의 ‘통화현’ 마을에서 행세하는 나쁜 조선인들이 있다. 삼봉은 의지했던 친척아저씨이자 마을지주 김문제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후 돼지풀이꾼으로 나서며 분투한다. 돼지 백마리를 몰고 일주일도 더 걸려 장에 도착하는 과정은 소설의 명장면 중 하나다. 하지만 결국 삼봉은 도둑질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sup>21)</sup> 가족들이 삼봉을 빼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김문제는 탐내던 을순의 몸을 얻고 이백 원이란 혈값을 건네는 인물이고, 또 다른 악인 박통사는 삼봉을 빼내보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이백 원을 삼키는 인물이다. 이후 삼봉은 경찰청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살인도 불사하며 탈출한다.

탈출한 삼봉이 “재만 조선인”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는 대목

20) ‘울로초’를 캐내 눈을 개간하는 과정은 개간/개척 서사 일반이 지닐 수밖에 없는 폭력성을 보여준다. 개간 작업을 방해하는 “기막히는 괴물”로 지목된 “울로초”는 “호미와 낫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용사”모양 덩비는 삼봉일가에 의해 “수천 개 울로초 떨기의 송장”으로 나가떨어지고 만다.(『삼봉이네 집』, 471~473쪽) 생생한 개간 서사와 함께 봉천 정거장에서 무순탄광으로 향하는 “빈민, 궁민, 유리민”(492쪽)의 묘사 역시 읽을 만한 장면으로 꼽힌다.

21) 삼봉네는 긴 재판과정에서 돈을 날리고 임차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다. 나중에 김문제에게 삼봉이 항의하는 말은 삼봉네 개척사를 잘 요약해준다: “그 눈을 뉘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울로초 뿌리를 뉘 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처음 와서 모른다고 그런 못 쓸 땅을 세상이 다, 못해먹을 땅인줄 아는 땅을, 속여서 팔아먹구 응, 개도 안 먹을 뜯 줍쌀을 주고 입쌀 값을 받아먹구, 논 값을 사 푼 변을 받아먹고, 금년 농사한 것은 한 알 안 남기고 타작 마당에서 빼앗아 오고”(『삼봉이네 집』, 481쪽, 『동아일보』(31.3.5)) ‘호로야’의 권유로 돼지풀이꾼으로 나선 삼봉이가 처음으로 돼지 떼를 팔고 귀가한 날 김문제와 호로야의 집에 도적이 들고 두 집에서 모두 삼봉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바람에 삼봉은 감옥에 갇혔다.

은<sup>22)</sup> 어김없이 뻔한데도 어김없이 복잡하다. 이제껏 삼봉은 노참사부터 김문제, 박통사에 이르기까지 조선인 권력자들에게 우롱당해 왔음에도 조선 동포 구제의 사명을 내거는 것을 보면 삼봉에게는 애초부터 민족의식이 주어져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민족’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주어져있다는 것은 오래도록, 뻔한, 서사가 되어버렸지만, 이를 둘러싼 자장은 또한 간단치 않다. 삼봉의 민족주의 투쟁에는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와 대결하려고 했던 작가의 정치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sup>23)</sup> 대외적으로 보자면 31년 9월 일본의 ‘만주’ 침략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소설 속 삼봉의 <간도>는 조선인이자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개척하고 투쟁해야할 무대로 확실하게 판이 짜이는 것이다.

을순의 정조서사는 이 민족서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조된다. 을순은 오빠를 구하고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녀’를 버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로써 을순의 ‘타락’은 완료되었다. 이 상황은 이제 여성의 타락과 구원에 얽힌 본격적인 도덕 틀을 예비해두고 있다. 전통적인 도덕관념은 을순에게 ‘죽음’(실제적, 사회적, 도덕적 죽음)밖에 남겨두지 않았을 터이나,<sup>24)</sup> 소설 속에서도 사실상 을순이 설만한 여지는 없어 보인다. 호송 중

22) 삼봉 무리가 악독 중국 지주나 조선인 협잡배들을 혼내고 다니면서 붙이는 격문이 있다. <金三峯爲曉諭事>라 하고 머리에 쓰고는 그 밑에는 누구든지 조선동포의 등을 굽어먹고, 조선동포를 천대하고, 조선 동포를 학대하고, 조선 동포의 땅을 떼고, 조선 동포의 집을 빼앗고, 조선 동포의 아내나 딸을 빼앗는 자에게는 반드시 호로야와 같이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었다.” (『삼봉이네 집』, 529쪽, 『동아일보』 (31.4.19)) 격문 속 “조선동포의 아내나 딸”이란 표현은 지나쳐도 될까? 격문 속 ‘조선동포’는 조선남성에 한정되어 있다.

23) 소설에 나오는 “공산주의자” 유정석은 삼봉에게 계급적 단결이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삼봉은 이를 “전 민족적 단결”로 확실하게 오해, 변용한다. (『삼봉이네 집』, 534쪽) 김윤식은 “무산계급 운동의 앞 단계로서 삼봉의 민족주의 투쟁론이 놓인다는 것”은 “당시 춘원의 역사 안목”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말한다. (김윤식, 앞의 책, 178쪽) 공산주의자에 대한 작가의 대결의식이 악의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공산”이라는 이름의 무능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단편 『혁명가의 아내』일 것이다.

탈출에 성공한 삼봉이가 “인제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고(523) 선언하며 을순이더러 시집을 가라고하지만 을순은 오빠를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는 억울한 오빠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던 을순에게 ‘나올법한’ 반응이지만, 죽은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은 큰 오빠에게 귀속된 누이의 종속적인 위치가 반영되어 있다.<sup>25)</sup>

그렇다면, ‘타락’한 을순의 행방은? 을순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방은 범법자가 된 삼봉의 선택에 달려있다. 삼봉은 주변 사람들과 작은 “군대”를 만들어 “조선동포”를 괴롭히는 이들을 소탕하러 다니는데, 나중에 수백 명으로 불어나는 “혁명당”의 무리 속에서 삼봉은 우두머리요, 을순의 일개 병정으로 거듭난다. 가족 서사 속의 <오빠-누이>는 민족 서사의 주체들로 거듭나면서 ‘사(私)’에서 ‘공(公)’으로, ‘개인’에서 ‘단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삼봉의 무리가 지향하는 ‘민족’은 근대적인 코드이지만, ‘사욕’을 지양하고 ‘공’을 실현하고자하는 전통적인 유교의 논리와 맞닿아있다. 전통적으로 ‘공’은 인욕이나 물욕과 같은 일체의 사욕을 차단한 상태로 공동체 발전의 전제로 상정되어왔다.<sup>26)</sup>

24) “치녀성을 잃고 고민하는 여성들”이라는 화두로 쓴 이광수 글의 제목은 “앞으  
 누우칠 것이오 自殺까지는 禁物이다”(『조광』(36.5), 242쪽)로 ‘실조(失操)’가 여전히  
 자살할만한 일임을 알려준다. ‘타락’했으나 끝내 구제받지 못한 여자주인공은 흔히 『  
 재생』(1925)의 ‘순영’이나 『사랑의 다각형』(1930)의 ‘은희’처럼 자살로 처리되기 십상  
 이다. 이는 <타락-구원>의 서사와는 다른 <타락-응징>의 한 서사 유형으로 이광수  
 뿐만 아니라 이태준, 염상섭을 비롯해 많은 군소 소설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부정  
 적인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25) 사실상 가족 모두가 범법자가 된 마당에 을순이 혼인을 하고 생활해나갈 가능성이  
 희박한 까닭이다. 이전에 삼봉이 노참사에게서 을순을 구해내고자 방으로 뛰어들었던  
 행위는 한 집안의 대표자로서 삼봉이가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하는 차원으로, 을순이  
 “내 몸이 무엇이 되든지 오라비 하나만 살려내자고 굳게 결심”하는 차원(『삼봉이네  
 집』, 515쪽)과는 차이가 있겠다.

26) 유교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유교대사전』, 성균관, 2007, 166/816쪽 참조.



『민족개조론』(1922)에서 이광수가 역설했던 “사회봉사심” 역시 삼봉네 무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민족개조론』에서 개인보다 단체, ‘사’보다는 ‘공’을 중시하는 “사회봉사심의 함양”을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강조했는데,<sup>27)</sup> 삼봉의 무리아말로 사회봉사심에 바탕을 둔 “단체”로 볼 수 있다. 단,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위계 단체로 삼봉이 구성원의 전체 의지를 구현하는 “지도자”이다.

단체 내 우두머리로서 삼봉, 그리고 일개 병정으로서 을순의 위계는 <오빠-누이>의 위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삼봉일가가 가족 공동체를 넘어 민족 공동체로 확장되는 데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의 상상은<sup>28)</sup> 공고히 남아있다. 아버지 내지는 장남에 귀속된 모녀라는 상상된 관계,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아버지와 나라의 아버지로서 군주의 연결이 그것이다.

“부친은 작은 천하의 군주이고, 군주는 대가족의 아버지”라는<sup>29)</sup> 봉건 사회의 지배적 도덕을 감안했을 때, 『삼봉이네 집』은 삼봉이 <가족의 가장>에서 <민족의 가장>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다. 그리고, 을순은 이 민

27)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23호(1922.5), 370~371쪽. 민족개조의 내용을 논하는 대목에서 그는 “사회봉사심”을 강조한다. ‘민족’이란 개인이나 가족, 친우의 전통적인 범위가 아닌 더 크고 포괄적이며 새로운 단위다.(377쪽) 김현주는 이광수의 “전체에 대한 사랑”의 “중요”적 성격을 지적한다.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239~247쪽)

28) 가족 공동체의 관념은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인간의 자기실현이 혈연가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 즉 유교에서 영혼불멸의 회귀를 가족이라는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통해 추구했다는 관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129쪽)(이숙인, 『유교 가족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성균관대 동아시아 유교 문화 교육 연구단 편, 청어람 미디어, 2004, 108~135쪽) 서구의 핵가족을 “민족 정신의 원천”으로 논의하는 대목은 조지 모스의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참고(서강 여성 문학 연구회 옮김, 소명출판, 2004, 39쪽)

29) 아버지와 군주를 연결하는 유교의 전통적인 ‘충효일치’ 사상은 “사적인 가족질서와 공적인 국가, 사회질서”를 “연속”으로 파악한다. 『유교대사전』, 2262쪽. 20세기 초 대가족에 기반하여 ‘나라’(國)와 ‘집’(家)을 연결/합체하는 데서 한국이라는 근대국가가 상상되었던 사정도 참고할만하다. (권보드래, 앞의 논문, 228~231쪽)

족 서사에 편입되면서 ‘버려진 몸’이라는 치명적인 허물을 구제받는 셈이다. 정조는 발명된 이상 버려지고 구제되는 극적 드라마를 준비할 수 밖에 없고, 을순은 민족드라마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여성, ‘신여성’으로 태어난다. 물론 ‘민족의 투사’로 재탄생하는 삼봉이라는 ‘신남성’을 통해 가능해진 스토리다.

‘신여성’이 된 을순에게는 급격한 남성화 경향이 눈에 띈다. 정확하게 삼봉을 빼내고자 김문제를 찾아가 이백원을 받고 ‘처녀를 떼는’ 순간부터 을순은 부쩍 ‘씩씩’하게 묘사되기 시작한다. 오빠를 탈출시키는 과정에도 을순은 적극 가담하는데, 이후 을순은 “늠름한 장부의 빛”(520) 돌고, “사내답게” 대답하며, “남복”을 입고 “말을 달리고 총을 놓는 병정”으로 ‘발전’해간다. 이런 남성적 어휘들은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용어다.<sup>30)</sup>

을순의 ‘남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을순이 되고자하는 이 ‘남성’은 그런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보장받고 있는 개인이라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삼봉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과 민족의 ‘가장’ 노릇밖에 주어지지 않는 삼봉의 모습은 가족과 사회, 민족에 묶여 개인성을 희생당해왔던 조선의 많은 남성상을 대변하고 있다.

### 3. 타락과 구원의 틀 II

#### —『순정해협』과 『순애보』의 보편적 휴머니즘이 구원하는 여성 인물의 타락

『삼봉이네 집』은 삼봉의 성장 서사이자 을순의 정조 서사이다. 작품의

30) “기대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성들은 남성적인 용어로 평가”된다는 점은 피터 브룩스의 『육체와 예술』(이봉지·한애경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0)에서 참고.

전반부에서 을순의 ‘처녀’를 놓고 벌어지는 흥미 위주의 섹스 스캔들은 후반부에서 타락한 정조 구하기라는 도덕으로 마무리된다. 여성 정조의 <발명-타락-구원>으로 이어지는 서사는 신소설부터 이어진 통속적인 서사 유형이지만,<sup>31)</sup> 30년대의 『삼봉이네 집』에서 정조는 의학과 법률, 저널리즘이 총출동한 화려한 근대적 시스템 속에서 발명, 통제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삼봉이네 집』과 함께 살펴볼 작품은 30년대 중후반의 연애 서사물로 할대훈의 『순정해협』과 박계주의 『순애보』이다. 먼저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육체적 타락에 얽힌 스캔들<sup>32)</sup> 형식을 통해 <타락-구원>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 『삼봉이네 집』의 처녀성 스캔들에 대응할만한 스캔들은 『순정 해협』의 정사(情死) 스캔들과 『순애보』의 간통 스캔들로<sup>33)</sup> 일차적으로 작품의 흥미와 오락을 담당한다.

주인공 여성의 정조는 이미 극단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제시되는데, 이는 ‘실조’(失操)를 도덕적인 문제로 만들어내던 30년대 후반의 분위기를

31) 홍정선의 논문(『한국 대중소설의 흐름』, 『한신 논문집』 2권, 한신대학교 출판부, 1985, 177~198쪽)은 신소설부터 2~30년대, 해방 후 정비석의 신문소설까지 통속소설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 서영채의 논문(『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4호(1993년 하반기), 267~288쪽)중 “통속성의 계보”를 논한 3장도 참고(274~280쪽)

32) ‘스캔들’은 1930년대 장편소설을 분석한 이해령의 논문(『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 식민지』,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217~239쪽)에서 따왔다. 그는 많은 작품들이 “성적 욕망으로 인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결국에는 물질적, 성적 욕망의 도덕적 승화에 도달한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의 담론 구조와 닮아있다.”고 지적한다.(234~235쪽)

33) 『순애보』의 가장 큰 스캔들이라 하면 남자주인공 문선이 인순의 강간살인범으로 몰리는 사건인데, 여기서는 문선의 초월적인 변모과정보다는 작품의 흥미를 담당하고 있는 철진-옥련 커플의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인순이 괴한에 의해 죽고, 괴한의 급습으로 문선이 실명하는 사건 역시 폭력성과 선정성을 보여주는 스캔들이다. 짝사랑하던 문선을 유혹했던 인순은 죽음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며, 문선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받아들일 때부터 문선의 예수되기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전달해준다. 30년대는 자유연애의 이상과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한 세대 가까이 진행된 상태로 여성의 정조 가치 하락을 혼란 도덕적 문제로 만들어내던 때이다. 연애는 여전히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연애사건, 연애의 이야기는 흔해빠진 심심풀이로 취급되던 때다.<sup>34)</sup> “귀여운 처녀를 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인 정조의 『싸구료』”라는<sup>35)</sup> 공감대가 형성되던 만큼 도덕교육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연애물에서 여자주인공의 육체적 타락이 극단적으로 설정된 만큼 이를 구제하는 양상은 지나치게 극적일 수밖에 없다. 30년대 후반의 서사물은 이제 정조의 발명단계를 훌쩍 지나 정조를 구원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여자주인공의 육체적 타락에 얽힌 스캔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흥미와 오락이었다면, 이차적인 목적은 타락을 구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도덕을 설복하는 데 있다.

작품의 말미에는 타락한 여성을 구원하는 데 다양한 근대적인 기제가 동원되고 새로운 남성상과 여성상이 만들어진다. 바로 두 번째로 살펴볼 세 작품의 공통적인 틀로 『삼봉이네 집』에서 구원기제는 바로 민족이라는 대의라고 할 수 있다. 을순의 타락이 민족서사에 편입됨으로써 구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봉이네 집』의 ‘민족’이라는 구원기제에 대응할만한 두 연애물의 공통적인 구원기제는 ‘순정’(純情)으로 그 묘한 휴머니즘

34) 지면 속 문인들의 대화와 현실 속 생활인의 간극은 여전히 보인다. 『조광』의 오락거리로 ‘유모어 설문’(『조광』 17(37.3), 246~250쪽)에 연애는 심심찮게 등장한다. “연애는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여자나 동생이 만일 자유연애를 하는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안해가 있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연애를 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질문에 골치아프다(이태준), 지긋지긋하다(양주동)는 답변이 눈에 띈다. 연애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심심풀이 땅콩’이지만, 현실 속 어머니들의 답변은 다르다. ‘결혼’이라는 제목 하에 『어머님 말씀, 따님의 말씀』(『여성』(36.7), 6~10쪽)이란 기사를 보면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자유결혼”/“연애결혼”이니 “남자교제”에는 적극 반대다. 실제로 “중매결혼”의 관습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다.

35) 김문식, 앞의 글, 132쪽. “귀여운 처녀를 잃은 여성”은 『조광』 37호(36.5), 234쪽.

적 가치는 차차 살피겠다.

먼저 『순정해협』은<sup>36)</sup> 준걸과 소희의 사랑이야기이고 작품의 주제는 준걸의 ‘순정’에 맞춰져있다. 준걸의 순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사랑의 힘으로 소희를 구제한다. 고귀한 사랑을 설복해줄 드라마의 중심에 타락한 소희가 있다. 소희는 처녀를 버려 영철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난하고 성실한 준걸 대신 부유하고 가벼운 영철을 택했던 것을 두고 뒤늦게 후회한다.<sup>37)</sup>

소희는 싱글맘에다 나중에는 살인혐의까지 받는 처지로 말하자면 지극히 ‘타락’한 상태다. 그는 “애비도 없는 사생아(私生兒)”를 낳음으로써 가족제도의 소수자가 되었고, 이후에는 살인혐의를 받아 법에 따라 처단될 위기에 처한다. 소희는 약혼자 영철의 아이를 뱉지만 버림받은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중 백화점 점원으로 취직한다. 그런데 소희를 눈독들이던 사장이 소희를 “윤락”하려다 돌연사하고 만다. 소희는 사장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 서는데 이는 “정사? 독사? 그 범인은 누구?”라는 “흥미 백퍼-센트의 뉴스”(198) 거리로 그려져 있다.

소희의 사건은 선정적으로 꾸며져 있어 독자들에게 통속적인 흥미를 주는 부분이고,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사실 소희의 오갈 데 없는

36) 『순정해협』은 『조광』에 1936년 1월에서 8월까지(그림은 안석영) 연재되었고, 연재 마지막 회에 함대훈은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발성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전했다. 영화 『순정해협』(1937, 청구영화사)은 신경균 감독 작품이며 김영옥의 첫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조광』 35호(38.9) 249쪽) 영화평이 『조광』 20호(『조광』(37.6), 316~317쪽)에 실려 있다. 1937년에 한성도서에서 발행한 5번째 장편소설 전집은 함대훈 편이고 참고로 4회 배본(配本)은 춘원의 『이차돈의 사(死)』(『조광』 16호(37.2), 369쪽)였다. 본고에서는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25(태학사, 1988)에 수록된 37년판 『순정해협』(한성도서)을 참고했으며 내용은 『조광』 연재본과 차이가 없다. 본문의 쪽수는 태학사본이며, 각주에는 『순정해협』으로 표기한다.

37) 소희는 “내가 순결한 처녀로 있었다면”(『순정해협』, 167쪽) 영철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고 새삼 “준걸이를 사모하는 생각”을 한다.(197쪽)

처지는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라는 독자들의 기대 속에서 서스펜스를 고조시키고 있다.<sup>38)</sup> 하지만 소희의 처지가 극단적인만큼 특단의 구제방도가 마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희를 세운 법정드라마는 급격히 어설퍼지고 만다. 드라마의 결말에서는 “사생아”의 아버지인 영철이 소희의 변호를 맡고 다시 구애를 하는 곡절까지 벌어지지만, 소희의 궁극적인 구세주는 준결로 낙착된다. 소희의 타락은 준결과 결합함으로써 구원되는 것이다. 상해로 가는 신혼여행 기차 속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는 타락했던 소희가 결혼제도 속에서 거듭난다는 마무리다.

결혼한 부부가 이루는 ‘가족’의 형태는 가장 권장할만한 사회적, 경제적인 결합단위다.<sup>39)</sup> 무엇보다 소희의 결혼상대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덕목을 습득한 인물이기 때문에 소희는 결정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준결이란 인물은 이전에 소희에게 버림받았음에도, 그리고 독일 박람회를 대표하는 한국의 생물연구자로 초청받을 만큼 훌륭해졌음에도 소희를 택한다, 아니 소희를 택하게 되어 있다.

준결은 근대 학문을 연구하는 인물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참된 순정”을 보여주는<sup>40)</sup> 새로운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탄생한다. 하지만 순정적인 남자주인공이 전적으로 새로운 유형은 아니다. 예로부터 강조

38) “a kind of uncertainty that is always pointed toward a possible resolution” (John G. Cawelti,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17) 독자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한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실제적인 충돌이 없는 “도덕적 판타지(moral fantasies)”라 할 수 있다. 이를 카웰티는 “도식/틀(formula)”의 세계, 원형적인 이야기 유형으로(p.16) 설명하고 있는데 소설의 통속성을 논의할 때 많이 인용되는 논이다.

39) 인생의 “조직체”이자 인류의 “제도”로서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를 논하는 이광수의 『결혼론』 참조(『여성』 창간호(36.4), 6~7쪽)

40) 자습으로 중학 교원까지 된 “준결은 고생과 인종과 진실로서 일관한 성격”이며, 영철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재주 있는 호탕한 청년”이다. 연재 마지막 회(『조광』(36.8), 355쪽)에 실린 전회요약문은 이들을 두고 “과도기 조선 청년의 일면상”이라고 밝혔다.

되어왔던 남자의 ‘절의(節義)’ 정신이 사생활을 취급하는 근대적인 로맨스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그 정신적인 가치를 발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준걸의 사랑은 “참된 순정”이라는 이름하에 도의적인 책임 문제로 ‘고양’되어 있다. 준걸이 사랑을 다짐하는 다음 대목을 보자. “결국 사람에게겐 정이란 것이 가장 크고 높은 것이거든, 참된 순정! 그것은 아무런 권세와 아무런 귀한 보배보다도 몇 배나 더 소중한 것이거든, 나는 비록 소희에게 버림당한 사람이지만 소희를 사랑했던 그 순정을 의리로 돌려가지구 그를 구원해보자”(178) 준걸은 “의리”로 꾸며진 사랑서사의 ‘영웅’으로 자처한다. 영웅이 구하는 대상은 ‘타락한’ 소희 즉 “육체”를 “버렸”던 소희다. 준걸은 “실수로 그르친 정조”를 문제 삼지 않겠다며 “비록 육체는 버렸지만 그 마음만은 어떻게 깨끗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178)라는 말을 한다.<sup>41)</sup>

이 순정과, 의리와 남성 영웅이 보여주는 미덕은 여자의 지조를 육체의 차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정신의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광수의 『무정』(1917), 『유정』(1933)에 드러나는 정(情) 담론의 연결선상에 있다. “끝없는 동정”으로 소희를 구제하는 준걸은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인물이며, “성인”의 풍모가 강조된다.<sup>42)</sup> 준걸의 정신과 순정 대신 영철의 부와 애욕을 택했던 소희는 자신의 선택을 곱씹고 후회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함으로써 도덕극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고 있다.<sup>43)</sup>

41) 백화점 사장의 독살사건을 접했을 때 준걸이 보이는 반응도 비슷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아모래도 소희는 그 남자와 그런 추악한 관계는 맺잡았을 게야. 그리고 그의 침실 속에 들어갔다 하드래도 최후의 일선만은 지켰을 게야.”(『순정해협』, 199쪽)

42) “사오 년간을 꾸준히 한결같은 맘씨로 자기를 생각해주는 그 순정적인 심리, 타락에 울고, 고생 속에 허덕이건만 그것을 더 가없이 생각하고 끝없는 동정 속에 항상 자기 신변을 생각해 주는 준걸이, 그녀는 성인이었다.”(『순정해협』, 196쪽)

43) 사실 소희가 구제될만한 빌미는 작품의 서두에 주어졌었는데 바로 “고아임에도 용

『순정해협』에 비해 『순애보』가<sup>44)</sup> 담고 있는 도덕교육은 더욱 명명백백하다. 『순애보』의 기독교 도덕은 선정적인 스캔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는 『순정해협』에 비해 인물묘사가 뛰어나고 문체가 재기발랄함에도 작품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순정해협』도 당대 영화화될 만큼 인기작이었지만, 『순애보』는 『매일신보』 현상당선작으로 해방 후에도 엄청난 인기를 끈 작품이다.<sup>45)</sup> 인기에 걸맞게 작품은 더욱 감칠맛이 나고 더욱 문제적이다.

작품의 중심 줄기는 문선과 명희의 고결한 사랑 이야기이고, 신을 향한 문선의 구도적 열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자주인공 문선은 살인사건에 휘말려 두 눈을 잃고 강간살인범으로 몰리면서도 인내와 관용의 태

---

모와 기쁨이 단아한” 소희의 묘사가 그것이다. 그가 한때는 영철이 건넨 육백팔십원짜리 금강석 영개이취 링에(『순정해협』, 115쪽) 넘어갔어도, 성실하고 한결같은 준걸을 외면했어도, 전형적인 ‘재자가인’, ‘선남선녀’의 유형에 속할만한 여자주인공으로 보인다.

44)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박계주의 『순애보』(1939년 발행, 41년에 17판 발행)는 『한국현대소설총서』 25(태영사, 1987)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쪽수는 태영사본이고, 이하 각주에는 『순애보』로 표기한다. 민중서관본(『순애보』, 민중서관, 1963, 28쪽)을 인용한 경우에는 민중서관본이라 명명한다.

45) 『순애보』의 출판사향은 진영복의 논문에서 참고할 수 있다. (진영복, 『순애보의 자기소멸을 통한 주체화방식』, 『어문론총』 45호(2006.12), 567~569쪽) 해방 후의 판본은 해방 이전의 판본과 크게 차이가 난다. 진영복은 논문 3장에서 매일신보 연재본과 1957년 성음사본을 대조하고 있다. 필자가 접한 1963년(초판은 1959년) 민중서관본 역시 태영사본(매일신보사가 발행한 1941년판)과 차이가 컸다. 전체적으로 문장을 대폭 손보았고, 특히 일본이 언급되는 부분은 명백히 적대적으로 개작되어 있어 해방 이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문선일가의 내력을 설명할 때, 『매일신보』에서는 문선네가 복간도로 이사하던 배경이 심상하게 묘사되고 있지만(『순애보』, 49쪽), 민중서관본에서 문선의 부친은 간도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벌이던 투사였으며, “일본의 대표적 착취기관인 동양척식회사가 우리 농민의 농토를 빼앗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국을 쫓겨나는 이들”, “일본의 압박과 학정을 피하여 자유천지 간도에서 마음대로 우리글과 우리 역사를 배우게 하려고 자체를 이끌고 가는 지사들”(민중서관본, 28쪽)이란 묘사가 첨가되어 있다.



도로 끝내 범인까지 교화해내는 초인적인 인물이다. 문선은 명량한 예술 청년에서 “원수의 죄를 질머진 사형수”가(252) 되었다가 이후에 사회사업과 문필활동에 종사하는 청년지사로 발전한다. 작품의 말미에 그가 쓰는 소설 제목이 ‘순애보’로 제시되는 재미도 있다. “불구”가 된 문선을 선택하여 그의 손과 눈을 자청하는 명희는 고행한 문선에게 주어지는 물리적, 사회적 보상과도 같다.<sup>46)</sup>

문선 커플이 보여주는 정신적인 사랑과 대조적으로 <철진-옥련> 커플은 타락의 끝장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작품의 흥미와 오락을 담당한다. 『순애보』의 인물군은 “횡경막 이상의 생활”을(329) 하는 인격적 커플과 “횡경막 이하의 생활”을 하는 “동물”적 커플로 대별되어 있다. 철진은 충실한 부인을 버리고 옥련과 결합했으며, 옥련은 친구 남편이었던 철진을 유혹하고 나아가 철진과 결합한 후에도 바람을 피운다.

옥련이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철진의 친구라는 요지경에도 작가의 필력은 비껴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적나라하다. 옥련이 “육욕의 영역에 돌진”(327) 하기까지의 묘사, 옥련이 철진에게 하는 뻔뻔한 거짓말, 동시에 철진에게 옥련의 ‘불륜’이 폭로되는 순간이 극적으로 지연되는 과정은 모두 작품에 자극과 긴장감을 더하는 요소다. 옥련의 혼외정사 장면은 독자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흥청거릴 수 있는 ‘카니발’(carnival) 체험을 유도하고, 기독교 도덕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sup>47)</sup>

46) “저는 이제부터 선생님의 눈이 되립니다. 손이 되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발이 되립니다.”(『순애보』, 601쪽) 민중서관본에는 “제가 문선씨의 눈이 되면 문선씨의 문학도 다른 기능도 모두 살릴 수 있을 거예요.”(301쪽)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

47) 관능성은 통속성의 주요범주 중 하나다. 박성봉은 성의 관능성 이외에 폭력의 선정성, 몽상의 환상성, 눈물의 감상성, 웃음의 해학성을 통속성을 체험하는 범주로 다루고 있다.(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23~369쪽) 이 중 해학성만 제외한다면 『순애보』는 전형적인 통속서사이며, 『삼봉이네 집』이나 『순정해협』 역시 통속적인 요소가 강하다. “도덕적 이분법”을 바탕으로 한 이광수 소설의 “통속적, 멜로드라마적 경향”에 대해서는 홍혜원의 『이광수 소설의 이야기와 담론』(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절을 ‘내팽개치는’ 옥련은 기독교적 교리에 의해 “요부”로 규정되어 있다. 타락한 옥련은 이제 도덕 교육의 좋은 샘플로 활용될 차례다. 옥련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다. 작품 속에서 하느님의 육성까지 삼입되면서 철진이 먼저 회개를 하고 “사랑의 사도”로(492) 변신하여 신문사의 수해 구조 활동 중 목숨을 잃자 옥련은 이에 감화를 받아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철진이 탕아에서 순교자로 거듭나는 데 이어서 옥련이 “요부”의 과거를 청산하고 “성녀”로 거듭나는 감화의 ‘연쇄사슬’이 완성되는 것이다.<sup>48)</sup>

『순애보』라는 도덕극에서 <문선-명희> 커플이 한결같이 선을 자처하는 도덕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타락한 샘플로 출발했던 <철진-옥련>은 반면교사(反面教師)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정과 애욕의 뚜렷한 이분법은 소설의 통속성을 강화한다. 단, 『순애보』의 이분법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모두 화해, 융화되며 보다 큰 차원의 ‘보편적 휴머니즘’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상소설로서는 너무나 정신과 테마”가 큰 소설, “그리스도의 <주라!>하신 사랑”이 “인류 구제”의 문제와 원리로 제시되어 있다는 평은 소설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당시 이광수가 서문에 쓴 말이다.<sup>49)</sup> 『순애보』가 말하는 “가장 깨끗한 사랑”은 『순정해협』의 “참된 순정”, “티 없는 순정” 나아가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최귀의 것”과도<sup>50)</sup> 직접 연결된다. 순정을 실천하는 『순정해협』의 준결과 『순애보』 속

2002, 222쪽/250쪽) 참조.

48) ‘감화의 연쇄사슬’의 처음은 철진의 옛 부인이자 명희의 친구인 혜순이 담당한다. 철진에게 버림받았음에도 혜순은 철진에게 “사랑으로서의 복수”인 현혈을 하고, 이에 감화를 받은 철진이 수해 구조 활동에 자원하여 아이를 구조하려다 목숨을 잃고 만다.

49) 전례 없는 “상금 일천원”의 장편소설 현상문예에 당선된 『순애보』는 “모든 점으로 보아 조선 문단의 최고봉 이광수 선생의 익명 투고라고 상정”할만큼 “그 문장이나 구성의 비범함이라거나 불타는 휴-마니즘의 약동함”이 상찬되었다.(『실화』(39.2), 31~34쪽) 『순애보』 속 문선이 자기 소설을 학생들에게 읽히는 장면에서 이광수의 작품 같다고 학생들이 입을 모으는 장면도 나온다.

에서 재탄생하는 ‘순교자’인 철진과 문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박애의 주체들로 묶일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찬미하는 휴머니즘적인 가치는 작품이 생산되었던 사회, 정치적 자장을 감안했을 때 뭔가 허약하고 위험해 보인다. 한결같은 사랑의 정신은 손쉽게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청산하려 들지는 않았을까. 두 작품의 주제와 연결될만한 작품으로는 이광수의 『사랑』(1939)이 있다. 이광수는 『순애보』의 테마로 “전 인류의 구제문제”로서 ‘사랑’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장편 『사랑』(1939)의 주제와 흡사하다. 『사랑』에서 설파하는 순결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는 부모, 중생(“남남”), 부처님, 하느님, 그리고 “조국님”까지 호명되어 있다.<sup>51)</sup>

『사랑』의 후반부는 간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삼봉이네 집』에서 무장 민족 투쟁의 무대로 꾸며진 간도와는 달리 화해와 화평으로 넘쳐나는 공간이다.<sup>52)</sup> 조선동포를 위해 싸웠던 31년 『삼봉이네 집』의 간도는 39년의 『사랑』에서 화합의 무대로 ‘발전’되어 있다. 사랑의 대상은 한정 없이 넓고 사랑의 주체들은 모두 “사랑에 순(殉)하는 순애(殉愛)의 사도들”로(309) 나아간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다다른 “나 없는 세계”로<sup>53)</sup>

50) “정이란 가장 높은 인생의 보물이다. 더구나 그것이 띄운 순정일진댄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최귀의 것입니다.” 『순정해협』 첫 회에 실린 “작자의 말”이다. (『조광』(1936.1), 368쪽)

51) 이광수, 『사랑』, 민중서관, 1970, 399쪽.

52) 복간도, 연길, 길림이 그 무대로 ‘길림’은 순옥이 딸의 이름이기도 하다. 『사랑』 속 간도에 꾸러진 안반의 요양원은 예수와 부처의 사랑이 넘쳐나는 무대이고 남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희생적인 무대이다. 주인공 순옥의 고통스럽고 헌신적인 결혼생활은 성녀로 탄생하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53) “사랑에는 <내>가 없다.”(『순애보』, 597쪽) “모두들 자기중심인 현대에 처하여서 <나>없는 세계를 동경하여 자기부정의 생애를 보내자는 것 부텨미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일>일 것이다.”(『순애보』, 이광수의 서문 중 4쪽) 진영복은 『순애보』가

대표되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자기희생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보편적 박애라는 작품의 테마는 일본 제국의 기만적인 대동아 공영의 논리 속에 안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 4. 정조 서사의 판타지가 만들어내는 ‘신여성’과 ‘신남성’의 문제

본문에서 필자는 세 작품을 살폈다.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 함대훈의 『순정해협』, 박계주의 『순애보』. 필자는 정조 서사의 판타지라는 틀에서 『삼봉이네 집』이라는 이광수의 민족서사와 통속 장편으로 분류되는 함대훈과 박계주의 작품을 함께 논의했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주인공 여성의 육체적 타락에 얽힌 스캔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원서사의 틀을 공유하고 있다. 세 작품의 중심 스캔들은 『삼봉이네 집』의 처녀성 스캔들, 『순정해협』의 정사(情死) 스캔들, 『순애보』의 간통 스캔들이다.

율순의 처녀성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옥련의 간통 스캔들까지 세 작품에서 여성 정조의 진폭은 큰데, 필자는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여성 정조라는 말을 결혼 전의 ‘처녀’와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육체적 충실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썼다. 여성의 정조는 결혼 제도 속에서 뚜렷하게 규정, 규제된다. 신소설에서도 인기리에 취급되던 여성 정조의 문제는 결혼 전, 결혼 후, 사별 후로 나누는 삼중지도의 뿌리 깊은 관례를 일정한

---

일제말기와 해방 후까지 많이 출간될 수 있었던 배경은 “순(殉)자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면서 독자들이 “형이상학적 대주체를 위한 주체소멸을 긍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진영복, 앞의 논문, 590~591쪽) 홍정선은 『순애보』를 『사랑』과 같은 계열에 놓고 30년대의 통속소설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박애정신”의 기만적인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홍정선, 앞의 논문, 189~194쪽)

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남성 정조의 경우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 후의 정조마저 1953년 형법이 개정될 때 이르러서야 규정되기 시작했던 점과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 아니, 작품 속 ‘단골’ 정조가 단연 여성의 정조라는 점, 그 정조가 육체적인 데 한정되어 있다는 점부터가 문제의 출발이겠다.

정조는 ‘발명’된 이상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한 정조의 처리 문제는 많은 소설이 다루는 인기소재였다. 육체적으로 ‘타락’한 여성은 정조 수호라는 억압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흔히 처절하게 ‘응징’되거나 구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등장한다. 본고가 다룬 여자 주인공들은 후자의 경우로 민족이나 휴머니즘적 가치와 같은 대의(大義)를 설복하는 계몽 서사의 틀에 규합, 복속된 경우다. 구원 서사는 시대를 선도하고자 했던 소설의 사명을 보다 뚜렷이 보여주는 경우이며, 응징의 서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1930년대의 사회 분위기가 더욱 자극적으로 ‘타락’한 여성인물을 대거 배출해낸 결과이기도 하다.

필자는 구원의 서사를 ‘정조 서사의 판타지’라 명명했다. 즉 정조의 발명과 타락,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틀이다. 1930년 작품인 『삼봉이네 집』이 근대적인 시스템 속에서 정조가 확인, 증명되는 과정부터 보여주고 있다면, 30년대 중후반의 연애 서사물 속에서 여성은 극단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보다 선명하게 도덕적인 구원의 문제를 던진다. 흥미 위주로 처리된 정조 타락의 양상은 일차적으로 독자에게 오락적인 효과를 주는 통속적인 틀이자 본격적인 정조 교육의 재료로 활용된다.

소설 속 정조 서사는 뿌리 깊은 정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나 타락한 정조를 구원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제는 근대적인 특성을 띤다. 『삼봉이네 집』의 을순은 삼봉을 통해 민족서사에 편입됨으로써 육체적인 타락을 구원받는다. 을순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기제가 ‘민족’이라는 대의라고 했을 때, 『순정해협』과 『순애보』에서 주인공 여성을 구원하는

공통적인 기제는 한결같은 ‘정’(情)으로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 확대될 만한 여지를 갖고 있다. 30년대 말의 급박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이 ‘박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은 본문의 끝에서 달았다.

‘정조 서사의 판타지’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따져볼 문제는 그 성별의 문제다. 정조서사의 판타지에서 정조는 여성 인물의 정조요, 그 판타지는 남성 인물의 판타지다. 공교롭게도 세 작품은 모두 남성작가의 작품이지만, 또한 공통적으로 작품 속 구원주체의 성(性)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남성의 판타지’이다. 오빠인 삼봉, 신랑인 준걸, 남편인 철진이 각각 『삼봉이네 집』, 『순정해협』, 『순애보』에서 여자주인공을 구원하는 주체들이다. 『순애보』의 경우 옥련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제된다고 보았을 때도 ‘하느님 아버지’의 성은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들 남성 주체에 의해 여성 인물은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민족 투사로 변신하는 을순, ‘바람직한’ 결혼의 제도에 안착하는 소희, 하느님의 딸로 거듭나는 옥련은 바로 정조 판타지 속의 ‘신여성’이다. 여성의 몸에 구체적으로 쓰이는 미래의 기획은<sup>54)</sup> 여성의 육체적 타락을 문제 삼아왔던 오랜 정조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조서사의 판타지는 여성의 순결을 발명해왔던 과거의 강압적인 기억과 함께 미래의 성취를 덧입히는 기획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들 신여성과 관계하는 남성주인공들 역시 새롭게 탄생하는 ‘신남성’들이다. 민족 투쟁의 선봉에 서는 삼봉, 근대학문을 학습하고 순정을 실천하는 준걸, 기독교적 사랑을 체현해내는 철진과 문선. 그런데 이들 신남성의 모습은 한결같이 지나치게 엄숙하고 신성하여 우스꽝스럽기까지

54) 소설 속에서 육체가 기호화될 때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졌다”고 할 수 없고, “과거와 미래에 의해 즉 시간적으로 구조화된다.”(피터 브룩스, 앞의 책, 46쪽) 더불어 육체가 서사물의 기호이자 의미를 연결하는 중심 고리로 작용하는 “이야기의 육체화” 현상에 대해서는 67쪽 참고.

하다.<sup>55)</sup> 삼봉은 ‘주어진’ 민족에 투신하며, 준걸과 철진, 문선은 박애의 화신이고자 한다. 『순정해협』의 준걸이 어디까지나 로맨스의 주인공으로서 박애를 실천하고 있다면, 『순애보』의 철진과 문선은 기독교적 도덕 속에서 더욱 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수렴할만한 유형으로 『사랑』의 안빈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연상일까? 박애정신의 최고조를 노래하는 『사랑』에서 그 중심주체인 안빈은 이들 신남성의 ‘정점’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조서사의 판타지는 판타지 속 구원대상과 구원주체의 성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독하게 성차별적인 서사다. 성이 근대적인 개인을 보장받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때,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역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보장받는 개인이지는 못한다. 민족의 투사인 삼봉을 비롯하여 보편적인 박애의 실천주체로 훈육되는 「순정해협」의 준걸, 『순애보』의 철진과 문선까지. 『사랑』에서 인류애의 설교자로 제시되는 안빈은 물론이다. 이들 신남성에게 ‘개인’의 자리란 없다. 오랜 정조 이데올로기와 근대적인 비전이 결합하여 낳은 ‘신여성’과 ‘신남성’의 문제는 근대 서사의 한 축을 설명할 수 있는 화두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본고에서 다룬 <타락-구원>의 판타지 이외에 <타락-응징>의 유형을 함께 살펴 전형적인 정조서사 속 오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적 전망을 두루 살피는 일이다.

55) 서영채는 『유정』의 최석을 두고 “신이 되기 위해 죽음을 택한,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사내들”이라고 했다.(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08쪽) 이광수의 서사는 “공동체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시선의 존재를 자기 삶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는 주체” 즉 “공동체적 주체”를(111쪽) 지향하고 “공동체적 연대로서의 사랑”을(126쪽) 설교한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광』, 『여성』, 『개벽』, 『실화』  
 『삼봉이네 집』, 『이광수 전집』 2, 삼중당, 1966.  
 『순정해협』,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25, 태학사, 1988.  
 『순애보』, 『한국현대소설총서』 25, 태영사, 1987.  
 박계주, 『순애보』, 민중서관, 1963.

### 2. 단행본

- 김윤식, 『이광수의 그의 시대』 2, 숲, 1999, 174~179쪽.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239~247쪽.  
 박금자, 『여성도 모르는 여성의 몸』, 민 미디어, 2003, 19~66쪽.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23~369쪽.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08~126쪽.  
 오문석, 『『무정』에서 순결함의 의미와 그 기능』,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대  
 중문학 연구회, 1998, 51~70쪽.  
 유교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유교대사전』, 성균관, 2007, 166쪽/816쪽/2262쪽.  
 이광수, 『사랑』, 민중서관, 1970, 399쪽.  
 『이광수 전집』 16, 삼중당, 1963, 193쪽.  
 이태준, 『딸 삼형제』, 깊은샘, 2001, 64쪽.  
 이숙인, 『유교 가족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  
 견』, 성균관대 동아시아 유교 문화 교육 연구단 편, 청어람 미디어,  
 2004, 108~135쪽.  
 이혜령,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217~239쪽.  
 정경숙, 『여자가 감히?』, 베스트셀러, 1999, 219~224쪽.  
 홍혜원, 『이광수 소설의 이야기와 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222~  
 250쪽.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27~31쪽.  
 미셸 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인간사랑, 1993, 23~320쪽.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심진경 옮김, 거름, 1998, 1~43쪽.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 여성 문학 연구회 옮김, 소명출판, 2004, 39쪽.

차학경, 『딕테』, 김경년 옮김, 어문각, 2004, 39쪽.

피터 브룩스, 『육체와 예술』, 이봉지·한애경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0, 46~67쪽.

Foskett, Mary F., *A virgin conceived: Mary and Classical Representations of Virginity*, Indiana University Press(Net-book), 2002, p.33~50.

John G. Cawelti,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16~17.

### 3. 논문

권보드래, 『공화(共和)의 수사학과 일부일처제』, 『문화과학』 24호, 2000년 겨울, 221~232쪽.

김중호,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 연구』, 『어문학』 61집, 1997, 23~42쪽.

노영택, 『일제시기의 문맹률 추이』, 『국사관논총』 51집, 1994, 국사편찬위원회, 109~159쪽.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4호, 1993년 하반기, 267~288쪽.

오양호, 『한국소설과 역사체험』, 『현대소설연구』 5호, 1996, 65~89쪽.

장병인, 『조선 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비평』, 1994년 여름, 87~107쪽.

진영복, 『순애보의 자기소멸을 통한 주체화방식』, 『어문론총』 45호, 2006년 12월, 567~594쪽.

한복룡, 『한국 혼인법의 역사적 기초』, 고려대박사, 1988, 5~11쪽.

한승옥, 『193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간도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23호, 2004, 47~68쪽.

허홍식, 『고려시대 근친혼과 일부일처제』, 『역사비평』, 1994년 여름, 80~86쪽.

홍정선, 『한국 대중소설의 흐름』, 『한신 논문집』 2권, 한신대학교 출판부, 1985, 177~198쪽.

## Abstract

The Story pattern of man's fantasy of woman's chastity in the 1930's  
 – focusing on *Sambong's Family*, *Love Strait*(純情海峽), and *Romantic Love Song*(殉愛譜)

Kwon, Chang-gyu

The study analyzes women's 'moral' corruption, one of the most famous theme of the novel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 Moral women has been regarded as having the virginity or physical fidelity to her husband by confucian ideas. Three novels, *Sambong's Family*(1931), *Love Strait*(純情海峽, 1937), and *Romantic Love Song* (殉愛譜, 1939) have the typical story pattern of women's moral corruption. Three works have the formula, so-called 'Men's fantasies of the women's chastity' in common although Lee Kwang-soo's *Sambong's Family* has become known to be the 'pure literature' about a korean nationalist but the others to be the 'popular literature'.

The formula of the fantasy story is a pattern which is the embodiment of the female's chastity and the male's salvation of the chastity. It gives amusement to readers through the sensational scandal about women's physical corruption but turns out to be a moral drama. Interestingly, the modern women(新女性) and modern men(新男性) are made to the end of the moral drama but two of them cannot have their own sexualities. The formula of the chastity fantasy is the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for identifying the dialectic between the old ideology and the utopian prospect of novel. The fantasy shows the old chastity ideology and the modern project for rescuing corrupt women through the nation(in *Sambong's Family*) or great humanity(in the other two works).

**Key words** : moral women, chastity, fantasy, corruption, salvation, moral drama, popular literature, sexuality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